

### 공동체 소식



#### 연중 제28주일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 교회는 해마다 시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지낸다.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이다.

####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 매일미사 책 85쪽 참조.

#### 본당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합

- 일시: 10/15(주일), 교중미사 후.

#### 10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10/21(토) 오전11:30.

#### 10월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10/28(토)

#### 구역장, 반장 반모임

- 일시: 10/22(주일) 오전11:30.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묵주 기도 성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31	54	168	246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정예찬 미카엘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영은 안젤라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차 주	김대연 요셉	이우석 프란치스코 김인자 글라라

#### 애찬 봉사자

금 주	장보혜, 장유정, 김수연
차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라우렌시오
차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08	61명	339달러	600달러
김동술, 김태선, 박동희, 이영민 (총 4세대)			

#### 연중 제28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10월 15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in@daum.net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이며 군인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아드님의 혼인 잔치에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희망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거부하지 않고, 그 잔치에 예복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그림 묵상

#### ‘혼인잔치의 초대’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마태 22,10-12)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거룩한 혼인 잔치에 들어가 즐거워하는데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슬퍼하며 물러갑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 가까이 아무도 모르게 힘들어 하는 이는 없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음을 쓰고 가진 바를 나눈다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아름다운 예복을 갖춰 입을 것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5,6-10  
<주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리라.>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4,12-14,19-20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1-14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 모든 이 초대받은 혼인 잔치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는 주님의 날을 혼인 잔치에 비유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이사 25,6) 이렇게 주님의 날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영원히 없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보라, 이분은 우리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이사 25,9)

오늘 복음 역시 주님의 날을 혼인 잔치에 비유합니다. 마태오는 이사야가 예언한 주님의 날, 곧 혼인 잔치가 이미 준비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를 준비하신 뒤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 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 신부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 계약으로 탄생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먹게 하고, 풍성한 포도주를 마시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임금이신 하느님은 종들을 보내어 처음 초대받았던 이들을 불러오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보내어진 종들은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이고, 초대받은 이들은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임금의 초대가 전해지지만 그들은 종들이 전하는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두 번째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으며, 어떤 이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선포하던 예언자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아들마저도 거부하고 죽이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임금은 진노를 터트리고 맙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없애고 고을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축제의 날, 구원

의 날이 진노의 날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임금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종들은 임금의 명에 따라 길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잔칫방은 손님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로 불리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받는 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나 하느님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임금은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만나자마자 그를 질책합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시켜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든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지만, 악인이든 선인이든 준비를 갖추어 잔치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잔칫상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올바른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는다면 혼인 잔칫상에서 결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예복을 갖추어 입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복음도 이런 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는 미사성제를 통하여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미사성제를 거행하면서 영원한 혼인 잔치에 맞갖은 혼인 예복을 갖추어 입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오가 이야기하듯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되는 이들은 적을 것입니다.(마태 22,14) 그러니 각자 혼인 예복을 잘 갖추어 입어 하느님의 영원한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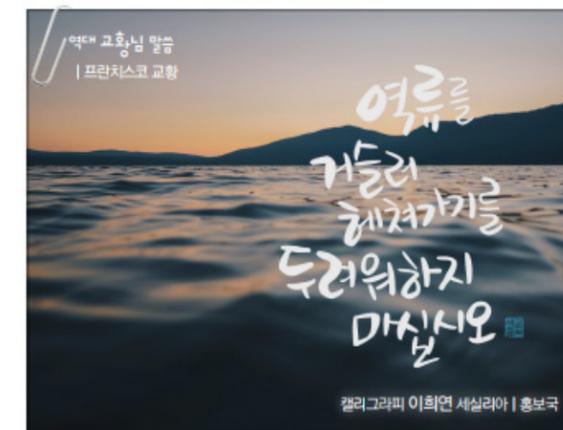


### 성모송

성모송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루카복음 1장의 말씀에 기대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28절)에서,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종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벳이 건넨 인사(42절)에서 각각 비롯됐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엘리사벳의 인사로 성모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되셨고 왜 행복하게 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누구라도 행복해지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것은 마리아가 하느님 은총에 열려 있었다는 것과 그 은총을 갈망하고 하느님께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천사의 방문으로 당황했던 마리아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가 상종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38절)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놀라운 응답으로 소녀 마리아는 성모님이 되셨고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모님이 주님과 함께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성모님은 헤아릴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모님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일생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됩니다. 성모님의 삶은 고달픈 인생 항로를 헤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끝없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삶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는 교회 공동체가 첨부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교회는 구세주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된 삶을 사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하고 간청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죽음을 대비하여 성모님께 의탁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모송은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순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사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죽음을 맞는 영혼을 흔든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대비해 이런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모님께 의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



**‘적당함’**  
가꿈은 이 말이 깃털처럼 가볍기도 무쇠처럼 무겁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착각이 어떠한 것을 해도 안 된다는 절망이 생깁니다.

#### 적당함

그래서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면 ‘적당함’이란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푸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마태 22,2)

